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은 순서는 (가), (라), (다), (나)이다.

(가)는 완전한 합리적 개인인 공평한 관망자의 관점을 통해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장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제일 크다. 공평한 관망자의 관점으로 사회 속의 개인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고려하여 개개인들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원칙을 사회 체계의 원칙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다.

(라)는 선과 덕을 가진 개인들의 집단만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과 덕을 갖추지 못한 개인들의 집단에서는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 목표에 대한 의지가 선과 덕을 갖춘 개인들의 집단보다 낮아서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낮아진다. (가)의 공평한 관망자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개인의 조건이 있지만 (가)는 개인 자체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반면 (라)는 개인이 모인 집단의 영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가 (라)보다 영향이 크다.

(다)는 덕을 가진 개인들의 집단이라도 이기심을 가진 집단으로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은 집단에 비해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집단에서는 개인들의 본능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심이 발생한다. (라)와 같이 도덕적 개인이 이루는 집단이라는 조건 아래 (라)는 개인들이 모일수록 엄격해지고 통일되어 공동목표에 대한 의지가 강해져 결국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다. 반면 (다)는 집단 속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라)보다 공동 목표에 대한 의지가 약하므로 (라)보다 영향력이 작다.

(나)는 개인을 주도하는 환경을 보여준다. 개인은 환경으로부터 받은 기대와 의구에 맞게 행동하려 한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주체적인 생각에 따라 행동하기 보다는 사회에 맞는 생각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작다.